

# 송당 신화의 기원에 대한 고찰

김진하\*

<차례>

- I. 서론
- II. 송당 신화의 고대성
  - 1. 두 개의 신화
  - 2. <이참고문>의 역사적 해석
  - 3. 고조기의 <산장야우> 속의 '송당'
- III. 송당 신화와 고대사
  - 1. 여신 금백조의 유래
  - 2. '서울담산송악산'의 세 가지 해석
  - 3. 송당 본풀이에서 불교의 의의
- IV. 송당 신화와 신라의 신화
  - 1. 송당과 소나무
  - 2. 송당 본풀이와 신라계 신화의 유사성
- V. 결론

## I. 서론

송당신은 제주도 당신의 원조다. 이 명제는 제주도 민속학에서는 확고부동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일찍이 제주 심방의 무가를 채록한 세 연구자인 장주근, 진성기, 현용준<sup>1)</sup>은 모두 한결같이 송당 본

\* 서울시 양정고등학교 교사

향이 제주도 무속의 원조라고 기술하고 있다. 송당신과의 관련을 가진 본풀이들은 보통 “웃손당 금백주 셋손당 세명주 알손당 소로소천국, 아들이기 열여덟, 빌아기 스물여덟, 손시방상 삼백일흔여덟”이라고 구송된다. 사실 제주섬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신당의 당신이 모두 송당신의 자손인 것은 아니지만 제주시에서부터 제주의 동부와 동남부 지역에까지 주요한 마을 열여덟 곳의 신당들이 송당신의 자손이라고 심방들에 의해 구인되고 있다<sup>2)</sup>. 제주신화의 분포를 정리한 고대경의 작업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라산신(하로백관도) 계열이나 송씨할망 계열의 당들이 분포도 어느 정도 넓은 범위에 걸쳐 있어서 제주의 모든 당이 송당신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sup>3)</sup>. 그러나 송당신 계열의 신당의 분포를 보면 송당이 있는 구좌읍을 중심으로 남으로는 표선읍, 성산읍, 북으로는 조천읍, 제주시 뿐만 아니라 대정읍 광정당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 분포는 제주섬의 절반인 동부지역을 완전히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멀리 그 반대편인 대정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니 구술자에 따라서는 심지어 서부지역의 많은 신당들 역시 송당신의 자손이라고 구전되기도 한다.<sup>4)</sup>

송당 신화는 삼성신화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이 명제 역시 위에서 언급한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바이다. 연구자들이 송당 신화와 삼성신화의 유사성으로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두 신화의 공통점은, 첫째, 제주도에서 나온 남자신과 섬 밖에서 도래한 여자신의 혼인이라는 것이고, 둘째, 수렵문화에서 농경문화로 변화하는 시대배경을 담고 있다는

1)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p.157.

2)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에서 남자무당 김오생 구술, pp.416-417과 여자무당 양기정 구술 p.419.

3) 고대경, 《신들의 고향》에서 <제주도 수호신의 계보 및 분포도>, pp.409-412.

4)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pp.418-419, 에월면 구염리 남무 김을봉 구술.

것이다<sup>5)</sup>. 특히, 현용준에 따르면 삼성신화에서는 수렵문화와 농경문화가 화해하는데 반하여 송당 신화에서는 서로 불화하여 소천국이 수렵생활을 계속이어 나갔으므로 송당 신화가 더 고대성을 띤다고 추정되기도 한다. 그런데 송당 신화와 삼성신화의 비교 역시 여기에서 그치고 만다.

송당신이 제주도 당신의 원조라는 명제와 송당 신화가 삼성신화와 유사한 틀을 가지고 있다는 명제, 이 두 가지 명제는 송당 신화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요구한다<sup>6)</sup>.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들을 보면 송당본향이 제주 무속의 원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그치고 더 이상의 논의가 없다. 송당본향에 대한 논의보다 오히려 거기에서 갈라져 나온 김녕의 퀘네깃당이나 와홀당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이는 기이한 현상마저 보여 왔다. 모든 심방들이 무속적인 세계에서 송당신의 권위와 영험을 인정하고 있고, 연구자들도 그 유구한 기원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송당신화에 대한 학술적 논구는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아직까지 단순한 지적에 그치고만 것은 무슨 까닭인가?

송당 신화가 그동안 변변한 조명을 받지 못한 이유는 몇 가지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첫째 이유는 그 신화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데에 있다. 심방들이 송당 신화를 구술한 것을 보면 남신 소천국과 여신 금백조(백주또<sup>7)</sup>)가 혼인하여 생활하다가 생활방식의 차이로 갈라서게 되었다는 비

5)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pp.158-159.

6) 본고에서 '송당 신화'가 뜻하는 것은 이중적이다. 그 하나는 송당 마을의 신화를 뜻하고, 그 다음은 송당 본향의 본풀이를 뜻한다. 하지만 송당 본향이라는 신당이 결국 마을의 이념과 동일하므로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히니답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송당은 그 마을 전체가 하나의 신당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송당은 단군 신화의 신시(神市)와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다.

7) 송당 신화의 여신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표기가 혼용되어 금백주, 금백조, 백주또, 백조할망 등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송당 마을 주민들의 구비 전승과 해석을 참고하여 정식으로는 금백조, 친근하게는 백조할망이라고 표기하고자 한다.

교적 간단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줄거리도 길지 않고 주인공들의 신화적 영웅성도 크게 드러나 있지 않다. 기껏해야 수렵을 즐기던 사냥 신 소친국이 농경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소를 잡아먹었다는 내용 정도인데, 혼자서 소를 한 마리(혹은 두 마리)나 잡아먹을 정도로 대식가였다는 내용이나 소를 잡아먹고 쟁기를 배로 밀어 밭을 갈 정도로 힘이 센 장사였다는 것 밖에는 그다지 두드러진 면이 없다. 보통 당신화에서도 그만큼의 위용을 보이는 신들은 많은 편이다. 다시 말해 송당 신화의 주인공들은 특별히 눈에 띄는神通력이나 신비도 보이지 않는다. 그와 더불어 송당 마을 사람들의 신앙 풍속이 지극히 정성스러운 것은 사실이나(제주도 무형문화제 5호) 다른 마을의 당신앙에 비교하여 볼 때 특별히 두드러진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신앙의 대상이 특정한 동물이나 자연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례에서도 제물로 비린 것(육식)을 멀리하여 맑은 음식(쌀음식)으로 올린다는 것 밖에는 다른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민속학적 관점에서 그것은 전형은 전형이되 매우 평범한 전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그런 이유로 송당 신화의 가치는 누구나 인정하지만 송당신의 위엄에 대한 존중에 그쳤을 뿐 더 이상 논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다.

## II. 송당 신화의 고대성

송당 신화에서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개의 신화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즉 소친국과 백조할망(백주또)이 만나서 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첫째 신화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새로운 당신이 되는 이야기가 둘째 신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송당 신화의 전반부, 그러니까 백

조할망의 자손들이 갈라져나가 새로운 신으로 좌정하는 2차신화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1차 신화는 매우 뚜렷하지만 단순한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 신화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하지만 신들의 무용담이나神通력 등에서 어떤 특이한 능력을 보여주거나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이야기는 매우 사실적인 진술인 듯 전개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송당 신화의 전반부는 신화적 상상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 1. 두 개의 신화

송당 신화의 1차 신화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제주도 토착 수렵문명과 해양 너머에서 온 선진 농경문명의 화해와 갈등이다. 그러나 그런 두 문명의 갈등이란 결국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송당 본풀이는 삼성신화와 마찬가지로 제주고대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송당 신화의 전반부, 그러니까 송당 마을의 두 곳 **웃송당과 알송당**에 당신이 좌정한 내력까지의 본풀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널리 알려진 현용준 본에서 인용하기로 한다.

소천국은 알손당(下松堂里) 고부니마루에서 솟아났다. 강남천자국 백모래밭에서 솟아난 백जू도가 자라나 배필을 찾으려고 천기(天機)를 살펴보니 제주도의 손당에 있을 듯하이 제주도에 날이와 소천국과 부부가 뇌이 산다. 자식이 점점 많아져가자 아내가 수렵만 하는 남편에게 농사짓기를 권유한다. 남편인 소천국은 소에 쟁기를 매우고 피씨 아홉섬지기의 오봉이굴왓에 가서 밭을 간다. 처가 점심밥으로 밥 아홉 동이, 국 아홉 동이를 짚어지고 왔으므로 길마 밑에 넣어 두도록 하고 밭을 가는데, 태산절 중이 지나가다

점심을 조금 달라고 했다. 먹으면 얼마나 먹으라 하고 허락을 했는데, 이 중 이 밥 이흠 동이, 국 이흠 동이를 모조리 먹고 도망가 버렸다. 배가 고프니 소친국은 할 수 없이 밭 길던 사기의 소를 잡아 구우면서 나 먹고도 요기가 되지 않아 이웃밭에 있는 암소들을 잡아 다 먹어서야 요기가 되었다. 소가 없어 배때기로 쟁기를 밀며 갈고 있더니, 아내가 와서 “자기 소 잡아먹은 것은 좋되 남의 소를 잡아먹었으니 쇠도독놈이 아니냐”하고 살림을 분산한다. 집을 나간 소친국은 해남곳굴왓에 가서 오막살이를 짓고 정동갈채 딸을 첩으로 삼아 다시 수렵생활을 한다.<sup>8)</sup>

이것은 널리 알려진 송당 신화의 전반부 줄거리, 일차 신화이다. 여기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함은 심방들이 이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구연한다는 뜻이 아니라, 현용준의 작업으로 표준어로 옮겨져 책으로 간행되고, 다른 저자의 여러 책에도 인용됨으로써 가정 널리 알려졌다는 의미에서이다<sup>9)</sup>. 본풀이에 따라서는 금백조와 소친국의 출생지가 전혀 다르게 제시되는 것도 있고, 둘이 갈라서게 되는 이유도 소친국의 대식성이나 도둑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경의 주요 수단인 소를 잡았다는 그 사실 자체에 주이지기도 한다. 한편 위에 인용된 현용준 본의 송당 신화(이달춘 구송)은 송당 본향당에서 갈라져 나온 제주시 내왓당 본풀이에 재구성된 것이다<sup>10)</sup>.

송당 신화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내용이 삼성신화와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유사성은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다. 더욱이 건국신화로까지 파악되고 있는 삼성신화와 송당 신화가 유사하다는 지적

8)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p.156.

9) 구전 본풀이의 정본을 확정하려면 여러 가진 구전의 비교가 필요하다. 아직까지의 신화 해석 작업들은 여러 구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나 충분하다도 말할 수 없다.

10) 현용준, 《제주도 신화》, pp.211-219.

은 송당 신화에 대해서도 역사적 해석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당신 본풀이를 역사와 관련지으려는 시도는 아주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제주신화를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등으로 나누는데 당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는 결국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역사의 산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풀이'라는 말 자체가 '역사'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뿌리를 풀어낸다'는 뜻의 본풀이는 역사적 근원을 밝힌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이다<sup>11)</sup>. 그래서 심방의 본풀이 중에서 당신본풀이는 결국 그 당에 모시고 있는 당신의 역사를 풀어 말하는 것이다.

## 2. <이참고문>의 역사적 해석

송당 신화의 경우, 당신본풀이의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송당이라는 마을 이름과 그 당의 이름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송당이라는 지명은 바로 이 마을의 본향당 이름이기도 하다. 그래서 송당 본풀이는 신당본풀이이기도 하지만 마을의 설촌 유래이자 역사이기도 한 것이다.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득한 고대성을 지닌 송당 신화는 송당이라는 신당의 탄생이자 송당이라는 마을의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송당 출신의 주민 채희주는 송당 마을의 유래를 나름의 해석을 곁들여 기록했는데<sup>12)</sup>, 송당본향본풀이에 나오는 세 주인공 김백조, 소친국,

11)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진>에서 <머리말> 참조

12) 송당에서 몇 대째 거주한 휴당(休堂) 채희주(蔡熙周, 1919-1998)는 <리참고문(里參考文)>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1993년이라는 시점이 명기된 이 기록들은 마을이 생겨난 유래와 지명을 송당 신화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마을의 구전과 심방의 본풀이는 물론 민족학적 연구까지 참고한 이 기록은 근래의 기록이면서 엄밀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송당 신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세명주를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공주와 장군, 상궁으로 보고 있다. 그가 작성한 <이참고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신라 경순왕은 경기도 장단(長湍) 좌소궁(左蘇宮)에서 동으로는 후백제 전원(甄元)이 경주를 함락하고 서로는 왕건이 침입 양세고불능자안 왕건 태조께 신하를 보내어 항서를 올리자 왕비박씨생삼남일여는 신라 천년 사직이 허무함을 탄식(하여) 태자는 금강산으로 들어가 마의초식마의태자(가 되고) 왕비 박씨 두 아들은 해인사를 들어가 중이 되고 여식은 허무한 궁궐(의) 소천국 장군을 대동(하여) 상궁 세명주와 삼위 일체가 되어 송악산으로 올라가 성황신 송단지신께 축원(城隍神松堂之神祝願)(하여) 신위를 모시고 남방 탐라국으로 도피(하여) 가물개로 내려 교래로 올라가 수렴으로 생애를 (보내다가) 금백조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문무 격차를 막론하고 다리 조입납(祖入納)서 백년가약을 맺고 부부가 되어 거주 지을 후망을 둘러온(?) 송당으로 내려와 백계(白僞)발 동산에 좌정(하여) 송당마르(噴堂湄)에서 잠시 요기를 하고 앞을 바라보니 아늑하고 풍치가 좋아 차계(鄭僞)터에 입주(하여) 리명을 송당이라 하고 많은 자식을 두어 오봉이 굴앗을 계간하여 풍족한 생활이 되었었다. 자식들은 자라서 각지에 가서 신당이 되고 금백조 소천국은 본향신 원조(가 되었으나), 이형상 목사(가) 당 오백 절 오백 파괴 당시 현지는 신처가 그대로 보존(되어) 정월 십삼일에 제(를 올린다).

상기 유래는 신라 역사 기록, 금백조 사적지, 각 심방(의) 본풀이를 인용하여 만든 바 무형문화재 기록에 빠진 것을 추가 기록하는 바입니다.<sup>13)</sup>

이런 해석은 심방의 무가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수렴문화와 농경문화 사이의 갈등, 특히 소천국과 금백조의 불화의 이유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진지한 역사적 사실처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회주의 기록은 주목할 만한 해석의 단초를

13) 채회주, <이참고문>, 미간행 초록. 본고에서는 이 기록에 들어있는 한자들 중 논의에서 필요한 부분만 옮겨놓았다.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뚜렷한 판본 없이 구비전승되는 서사무가와 마을의 유래를 역사적 근거와 관련지으려 했다는 점이다. 특히 그렇게 함으로써 송당 신화의 엄밀한 확정을 설촌유래와 관련지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참고문>에서 송당의 여러 지명의 유래가 소천국과 금백조의 행적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채회주는 금백조의 사적지로 '경기도 장단 좌소궁 송악산 송당지신 민족보결'을 거론하고 있으나 장단 송악산에 성황신이 있었다는 것이나 그 근거로 든 민족보결 등의 문헌이 실재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채회주는 송당 본향 본풀이를 신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역사적 사실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러한 추정에 대한 나름의 근거는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채회주는 고대 역사에서 여자가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신라의 정치에서 유독 두드러졌다는 점, 금백조라고 하여 김씨성을 가졌다는 점, 서울 남산 송악산이라고 하여 그 유래를 명시하였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상상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송당 신화의 유래를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참고문>의 기술을 그대로 수궁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추정을 가능케 하는 실마리는 무시 못 할 가치를 가지고 있다.

### 3. 고조기의 <산장야우> 속의 '송당'

송당 마을이 언제 생겨났는가. 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화만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송당 마을이 상고 시대 제주역사에서 문명의 전환점을 이룩한 곳이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막연한 문명사가 아니라 역사적 해석을 들이대면 제주의 고대사가 늘 그렇듯 사료가 빈한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당 마을의

설촌유래나 고대성을 방증하는 사례는 없지 않다. 그것은 고려시대의 한 인물과 관련되어 있다.

제주섬 동부의 중산간에 위치한 한 마을이 고려시대의 중앙정계의 거물 고조기(高兆基 1088?~1157)와 관련되어 있음은 주목할 일이다. 고조기는 예종에서 의종에 걸쳐 고려 조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인물이다. 고조기의 아버지인 고유(高維)는 제주출신으로 고려조정에서 벼슬을 했다. 고유는 탐라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빈공(賓貢)으로서 정왕(靖王) 을유년(1045; 정종 11년)에 남성(南省試, 國子監試)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고, 벼슬이 우복사(右僕射)에까지 이른 인물이다<sup>14</sup>). 그리고 고유의 아들 고조기는 개성에서 태어나 출중한 능력으로 출세한 사람이다. 고조기는 예종2년(1107년)에 과거에 합격하여 인종과 의종을 거치며 벼슬을 했고 의종 3년에는 정이품직인 중서시랑 평장사에 임명되었다. 당시 최고 관직이나 다름없는 평장사에 임명된 것은 그가 고려귀족사회의 최상층에 진입하였음을 뜻한다. 당시 평장사의 관직은 지금의 총리와 같은 직책이었기 때문이다. 고조기는 제주 출신의 첫 수상이었다<sup>15</sup>).

고려사에 뚜렷하게 이름을 남긴 고조기의 행적 중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시를 잘 지었고 그 가운데 몇 편이 후세에 전한다는 것이다. 그의 작품들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동문선>에 여러 편이 전하고 심지어 현대에 나온 한시 감상서에도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시 작품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문학적 성취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시들 가운데 제주와의 관련을 보여주는 것으로 <산장야우>가 전한다.

14) 정이오, <성주고씨가전>, 《동문선》, 제101권.

15)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pp.81-89.

昨夜松堂雨(작야송당우) 어젯밤 송당에 비가 내려서  
 溪聲一枕西(계성일침서) 배갯머리 서쪽으로 개울물 소리  
 平明看庭樹(평명간정수) 날이 밝아 뜨락의 나무를 보니  
 宿鳥未離栖(숙조미리서) 자던 새는 등지를 뜨지 않았네

이 작품은 시상의 전개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예나 지금이나 감상할 만한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런데 제주와 관련하여 이 시에서 주목되는 것은 ‘송당’이라는 명사이다. 시의 흐름상 송당이라는 말은 일반 명사로 보이기도 하고 고유한 지명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때 ‘산장’과 ‘송당’이라는 명사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산장=송당이라면 송당은 단지 어느 산속의 산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산장이 송당이라는 곳에 있는 산장으로 보는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시를 번역한 역자들의 해석에서도 그것이 고유지명인지 보통명사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현재 전해지는 고조기의 8편의 시에서 <숙금양현(宿金壤縣)> 이나 <진도강정(珍島江亭)>, <영청현(永淸縣)>, <안성역(安城驛)>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의 시들은 대부분 객지에서 서정을 읊는 경우가 많고, 머무는 곳의 지명을 제목에 넣는 경우가 많다. 송당이라는 지명은 제주도의 송당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명이 아니라는 점에서, 만약 위 시에서 송당이 지명이라면, 그것의 제주도의 송당일 개연성은 매우 높다. 더욱이 이 시에 거론된 송당이 제주의 송당이라고 특별히 기록된 바는 없으나 송당 마을 사람들은 이 시에 나오는 송당이 제주의 송당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채회주는 <이참고분>에서 <산장야우>의 송당을 제주의 송당으로 해석하고, 그것은 고조기가 ‘의종(毅宗) 때 중서시랑 평장사의 신분으로 제주를 순시하여 수산현을 돌아보고

오는 도중 송당에서 비를 만나 허룻밤을 세우고' 쓴 작품이라고 적고 있다. 채희주는 고씨족보를 참고했다고 쓰고 있으나 물론 고조기가 제주에 들렀다는 기록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조기가 평장사의 책무로 탐라현을 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고향인 제주에 다녀갔을 정황은 충분하다. 먼저 현재 전하는 그의 시 <진도강정>에서 '진도'가 지금의 전라남도 진도라면 그곳은 제주와 가장 가까운 뱃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특히 그 시에서 전하는 차분하고 쓸쓸한 분위기는 <산장야우>와 통하는 바가 있다. 그가 일찍이 예종(睿宗)초에 과거에 오른 뒤 남쪽고을의 원으로 나가 봉직하였다는 기록도 탐라와의 거리를 가깝게 해준다.

한편, 고조기의 탐라 방문을 짐작하게 해주는 또 다른 사실은 그가 인종 때에 이자겸 사건과 관련하여 상소를 거듭하다가 좌천당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고조기는 대간에서 예부낭중으로 승진(실상은 한직으로 좌천)되는데, 이후 의종 즉위년까지 17년 동안이나 그의 행적이 전하지 않는다<sup>16)</sup>. 이 17년 동안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탐라에 다녀갔을 개연성도 있다. <산장야우>에서 전하는 시의 분위기를 정치적 은유로 읽으면 권력을 가진 자의 힘보다는 중앙권력에서 밀려나거나 그곳의 소란을 피한자의 심경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탐라에 들렀다면, 그리고 송당 신화에서 전하는 바대로 송당이 고대에 일찍이 농경문화를 일군 탐라의 중요 거점이었다면, 고조기가 송당에 들렀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송당 본향의 본풀이와 설촌유래에 대한 채희주의 <이참고문>, 그리고 고조기의 시 <산장야우> 등을 종합해보면 송당은 일찍이 천년 전에 제주의 주요

16) 이종문, <고조기론>, 《제주작가 제6호》, p.252.

한 정치적, 문화적 거점이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물론 아직 이점은 확증된 것이 아니며 정황에 따른 추정이기기는 하다. 그러나 신당 본풀이에 대한 접근에서 하나의 시도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 Ⅲ. 송당 신화와 고대사

#### 1. 여신 금백조의 유래

채회주의 <이참고문>에 기록된 송당신화유래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드러난다. 첫째, 본풀이 연구자들이 금백조, 금백주 등으로 채록한 백조할망의 한자 표기<sup>17)</sup>를 금백조(金白祖)로 하고 있다는 점, 둘째, 금백조를 경주김씨로 보고 있다는 점, 셋째, 금백조가 유래하였다는 본풀이의 송악산을 개성 근처 장단의 송악산으로 해석하였다는 점 등이다. 첫째, 송당 본풀이의 여신 이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연구자나 구술자에 따라서 금백주(진성기), 백주또(현용준), 금백조(고대경) 등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현재 송당의 주민들은 명확하게 백조할망이라고 부른다는 점이다. 백조할망 말고 금백조라고도 하는데, 이것의 한자표기는 채회주의 <이참고문>처럼 金白祖가 분명해보인다. 본향본풀이에서나 마을주인들의 전승에서 백조할망은 '맑은 조상'으로 떠받들어지는데, 그것의 한자표기가 '白祖'인 것이다. 여기서 '맑은 조상'이 뜻하는 것은 농경문화의 산물인 하얀 곡식(쌀)을 전파한 조상으로서 쌀로 만든 재물을 받는다는 뜻이다.

17) 진성기는 금백조, 혹은 금백주의 한자표기를 金百主로 보았다. 하지만 고대경은 한자표기를 가정하지는 않았지만 금백조로 보고 있다. 고대경, <신들의 고향>, pp.296-325.

한편, 신라말 고려초 혼란기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고려태조 왕건이 시행한 토성(土姓)분쟁으로 인하여 한민족의 성씨들이 확립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다. 그러나 고려시대 이전에도 몇 개의 귀족 성씨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김씨 성은 신라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자손들이 신라가 망하자 각지로 흩어지면서 새로운 김씨의 본관이 여러 개 생겼다는 점도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송당리의 주민 채희주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백조할망을 쉽게 신라계로 본 것일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삼을라 신화가 양고부 삼성씨의 삼시조를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금백조라는 송당 신화의 여신이 뚜렷하게 현재의 김씨성을 가졌다는 점이다. 더욱이 본풀이대로라면 금백조는 여자이면서 남자를 이기고 높은 곳(웃송당)을 차지하는데, 그 뒤에 갈라진 당신들에게도 '김씨 하르방'의 계보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8)</sup>. 오래된 형태를 가진 그 밖의 제주신화의 신들이 대개 자연적인 명칭을 가지는 반면 금백조나 소천국은 뚜렷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김씨성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이 자연신앙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신의 성씨가 김이라는 사실은 신라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셋째 금백조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는 본풀이를 구송하는 심방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다.

- ① 강남천자국 백모래밭 (이달춘 구송-현용준 본)<sup>19)</sup>
- ② 서울 남산 송악산 (고봉선 구송-장주근 본)<sup>20)</sup>
- ③ 왕대웃성 7립질 알 (이상문 구송-진성기 본)<sup>21)</sup>

18) 고대경, 《신들의 고향》, p.299, pp.324-325.

19) 현용준, 《제주도 신화》, pp.211-219.

20)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pp.214-217.

송당 본풀이에서 소천국과 백조할망의 유래는 망실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종잡을 수 없게 차이가 크다. 첫째 강남천자국 백모래밭이라는 것은 구술자의 착오나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강남천자국은 보통 송당신화의 주인공의 출생지가 아니라 그 아들인인 검홀 문국성이나 태자 레네깃도가 용궁을 거친 후 무궁을 세우려고 찾아간 나라로 나온다. 둘째의 특징은 구체적인 지리와 지명을 명백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장주근 본은 송당리에서 4대에 걸쳐 심방을 대물림한 고봉선 심방의 구송을 채록한 것으로 서울 남산 송악산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고 있다<sup>21)</sup>. 셋째의 왕대웃성은 의미가 불분명한 만큼 신화적인 공간으로 보인다.

## 2. '서울남산송악산'의 세 가지 해석

채회주의 <이참고문>은 고봉선 심방의 구술과 마찬가지로 '서울남산 송악산'이라는 심방의 구전을 송악산에 좌정한 '송당지신'이라는 신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확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심방의 구전에 나오는 "서울 남산 송악산"이라는 말을 실재하는 지명으로 볼 경우 흥미로운 추정을 할 수 있다. 그것은 한반도 정치사의 변화에 따른 수도 서울의 천도와 관련되어 있다. 즉 서울 남산 송악산이라는 말은 신라의 서라벌에서 고려의 개성으로, 그리고 어찌면 다시 조선의 한양으로 옮겨간 한반도 정치사의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서울과 남산이라는 지명의 가능한 조합에서 다음과 같이 유추된다.

21)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pp.408-415.

22)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pp.214-217.

- ① 서울(신라의 서라벌) 남산 (경주의 남산)
- ② 서울(고려의 개성) 송악산 (개성의 산)
- ③ 서울(조선의 한양) 남산 (서울의 남산)

서울 남산 송악산을 실재의 지명으로 볼 경우 그것은 위에 있는 세 개 가운데 하나에 가까울 것이다. 고대사에서 어떤 정치 세력이 김씨성을 가진 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신라의 왕위계승역사와 쉽게 연관지어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신(主神)이 서울남산이나 서울 남산 송악산에서 났다는 구전은 신라 중기나 신라말 고려초의 맥락과 연결지을 수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바다를 건너온 금백조 세력이 농사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신라 지증왕 때에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한 우경법(牛耕法)의 전파를 보여주는 것 같다. 금백조할망의 위세라는 것이 신화에서 보면 농사기술을 가졌다는 평이한 서술을 보인다는 점은 흔히 신이한 능력의 소유자로 나타나는 당신의 상상체계와는 매우 차이가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신화적 고대성을 담고 있는 백조할망 이야기가 평명한 역사서술처럼 제시되는 것은 실제로 송당 본향 본풀이가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추정하게 해준다.

### 3. 송당 본풀이에서 불교의 의의

금백조 신이 신라공주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라는 가설은 본풀이에 나오는 불교에 대한 언급과 관련지어 볼 때 그럴듯한 맥락을 보강해 준다. 송당 신화에서는 불교와 관련된 사건이 두 번 나오는데, 그것 역시 일반적인 서사무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무불융합(巫佛融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한 사건으로만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는 백조할망이 서울에서 쫓겨나 송당으로 오게 된 이유와 관



런되어 있다. 본풀이에 따르면 백조할망은 어린 나이에 중에게 겁탈을 당하였다고 한다. 이것을 정치적 상징으로 읽으면 금백조 세력이 불교 신봉 세력에 밀려났다는 가설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나말여초의 상황에 맞추어 보면 궁예와 왕건이 불교를 중심이념으로 하여 신라계를 공략했음을 떠오르게 해준다. 신라 역시 불교문화 속에 있기는 했지만 나말여초의 상황에서는 궁예나 왕건의 불교 세력이 더욱 강성했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정치 세력의 대외 이동은 6-7세기에 매우 활발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경쟁시기에 여러 이유로 한반도로부터 일본으로 여러 정치 집단이 이동했음은 일본의 역사가 입증해준다. 더욱이 일본에 산재한 신사들 가운데 고구려, 백제, 신라 계의 조상이나 신을 모시는 신사들이 여러 곳에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의 정치집단의 이동에서 보았을 때 한반도의 정치 집단이 반드시 일본으로만 갔을 이유는 없다. 다시 말해 당시의 탐라(섬나라)로 여러 정치 집단이 이동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제주에 분포한 여러 당신앙 중에 일정한 계보를 갖춘 것들은 고대의 한반도 정치집단의 이동과 관련지어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송당 신화는 가장 뚜렷한 요소들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송당 신화에 나오는 불교와의 갈등은 소천국과 백조인명이 산업을 나누게 되는 대목에서 그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소천국이 피(기장)씨 아홉 심지거나 될 정도로 넓은 음빙이굴윗(오빙이굴윗)을 갈고 있을 때 지나가던 태산질 중이 나타나 점심 동냥을 하는데 소천국이 허락하자 소천국의 점심을 모두 먹고 가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배가 고파진 소천국은 허기를 참지 못하여 밭을 갈던 소를 잡아먹게 되고 이것이 금백조와 불화하게 되는 싸움의 원인이 된다. 수렵생활과 농

경생활의 갈등과 불화를 야기한 것은 소를 가축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나머지 짐승처럼 쉽게 잡아먹어도 되는 것으로 보느냐 하는 논쟁거리를 안고 있는 셈이다<sup>23)</sup>. 그런데 신화의 이야기에서는 그 장민에서 느닷없이 중이 나타나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고 사라져버린다.

송당 신화에 두 번이나 나오는 불교의 동기는 단편적이고 부정적이다. 금백조가 부모에게서 쫓겨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이 중이었다는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읽으면 존귀한 여자를 모시는 세력이 불교추종세력에 밀려나 바다를 건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금백조와 소천국의 갈등의 원인처럼 주어지는 중의 존재는 식량을 간악하게 수탈하던 불교세력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다만 이야기의 구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당시에 제주에 불교가 들어와 있었는지 아직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송당신화에서 이 두 번째 중의 이야기 역시 불교와의 갈등을 보여주는 뚜렷한 지표로 읽을 수 있다. 종교사적 맥락에서 그것은 무불융합 이전의 토착신앙과 불교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들은 송당신화의 형성을 고려 이전의 상고시대로 이끌어 가고 있다.

23) 이 대목의 변이형으로, 현용준 본(이달춘 구술)처럼, 소천국이 자기의 소를 잡아먹고 남의 소마저 잡아먹었기 때문에, 금백조가 그 도둑질이 윤리적으로 나쁜 일이어서 해어진다는 줄거리는 신화의 전개상 매우 후대의 구성으로 보인다. 우선은 소천국이 수렵문명의 시각에서 가축으로서의 소의 소중함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금백조와 갈라서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소천국의 엄청난 식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한 마리 소를 다 잡아먹었다는 것이 강조되는데, 그것을 과장하기 위해 옆발에 있던 또 다른 소를 잡아먹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덧붙는 것이다. 그것의 의도는 어디까지나 소천국이 가진 대식성이 농경문화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달춘의 구술처럼 재물의 분배와 소유라는 농경문화의 개념이 나오고 자연 수렵 상태에서는 당연시되던 사냥이 정착과 농경문화의 가치관에 따라 도둑질로 자단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 IV. 송당 신화와 신라의 신화

고려 초기에 활약한 고조기의 <산장야우>에 나오는 지명 송당이 송당 신화의 송당이라고 보면 송당 마을은 설촌된 지 천년이 넘는다. 당시 고조기가 송당에 들렀고 그 지명을 그대로 기록했다면 이것은 제주 지역의 지명 유래에서 가장 고대적인 형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송당 신화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것 중 하나는 송당이라는 마을 이름이 본래는 송당이라는 본향의 이름과 동일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마을의 이름이 이미 '당(堂)'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마을의 설촌이 당의 성립과 일치한다는 증거이다. 채희주는 이를 송악산의 송당지신이라는 성황당 명칭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백조 세력이 이미 산신숭배와 조상숭배라는 토착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경우, 그것이 송당이 아니라 성황당이라고 하더라도 송당과의 관련은 금방 드러난다. 즉 성황당은 '서낭당'으로 와전되어 전하기도 한다. 성황당을 서낭당이라고 이주 집단이 말했을 경우, 당시 토착민들이 이를 소낭당이라고 들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제주방언에서는 소나무를 소낭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성황당→서낭당→소낭당이 되고 소낭당을 한자로 표기하면 서 송당이 되었으리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요점은 어쨌든 송당이라는 지명이 소나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 1. 송당과 소나무

송당이라는 마을 명칭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금백조가 아니라 소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상문 구연, 진성기 채록본의 송당본향본풀이<sup>24)</sup>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소천국은 하상 천즈지국에서 날 적에  
 ㄱ는ㅁ들 존소남밭 알로서 탄생되었다.”

여기서 나오는 “ㄱ는ㅁ들 존소남밭 알”은 무엇을 뜻하는가? 진성기는 방언 풀이 대역에서 “가는 머들 잔소나무밭 아래”로 적고 있다. 아마 구연한 심방의 견해에 맞추었으리라고 보는데 일상적인 방언의 용법으로 볼 때 그다지 무리는 없다. 그리고 소천국이 탄생한 곳이 작은 소나무밭이라는 것은 뚜렷한 것 같다. 이 점은 송당에서 갈라져 나온 가지 당 본풀이에서 소천국을 호칭할 때 보통 “소로소천국”이라고 하는 것과는 일정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소로소천국에서 “소로”도 소나무의 어원인 “솔”의 변이형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물론 심방들의 구연은 음악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단지 운을 맞추기 위해 허사들이 붙은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이 경우 소로소천국은 소나무와의 관련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므로 송당이라는 명칭은 소천국이 태어난 곳이며, 더 나아가 소천국이 터를 닦은 곳이라는 말도 된다. 보통 연구자들이 소천국을 토착 수렵신으로 보고 있는 것과는 통한다.

다만 문명사적으로 송당 신화를 볼 때 소천국이 수렵문화를 상징하고 백조할망이 농경문화를 상징한다고 보아 소천국은 제주의 토착 세력으로 보아왔으나 본풀이에 따라서는 소천국 역시 외부에서 들어온 것처럼 구송되기도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송당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추정해볼 수 있다.

- ① 송악산의 송당지신에서 유래했다.
- ② 성황당-서낭당-소낭당-송당으로 변했다.

24)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pp.408-415.

- ③ 소로소천국이 태어난 곳이 소나무 밭이다. 소로소천국에서 '소로도 소나무와의 관련을 뜻한다.

위의 세 가지 가설 중 첫 번째는 관련 문헌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두 번째 가설은 유보적이다. 소낭당과 송당 사이에 관련이 있었다면 어딘가에 흔적이 남을 법도 한데, 제주 사람들은 송당을 흔히 '손당'이라고 부르는 하지만 '소낭당'이라고 부르는 예는 없다. 그럼에도 송당계 본풀이 가운데 "웃소낭당, 알소낭당"이라고 하는 예가 없지 않으므로<sup>25)</sup> 이에 대한 명백한 고찰은 남겨져 있다. 세 번째는 소천국이 소나무밭에서 태어났다는 것인데, 하상천자지국이라고 신화적으로 상정되고 있다. 그런데 위의 세 가지 주장들에 공통되는 것은 소나무이다. 송당이라는 마을의 명칭은 어쨌든 소나무당이라는 것이다.

송당이 소나무 당을 뜻한다면 그것은 신목(神木)으로 소나무가 숭배된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전통 신앙에서 소나무가 신목인 경우는 많다. 특히 산신신앙과 관련될 때 소나무와 산신령과 호랑이는 산신신앙을 이루는 3대요소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의 많은 신당에서 보통 신목으로 숭배되는 나무는 팽나무이다. 송당도 예외가 아니다. 마을의 구전에도 있고 일찍이 답사를 한 기록에도 남아 있듯이 송당 본향에는 거대한 팽나무가 신목으로 있었다<sup>26)</sup>. 여기서 송당이라는 명칭은 특이하게도 제주의 토속신앙의 실제와는 어긋난다. 한반도의 산신신앙에 쉽게 나타나는 소나무 신목이 송당에서는 그 명칭이나 당신의 출생 유래와는 관계되어 있지만 보통 팽나무를 신목으로 모시는 제주의 신앙과

25)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에서 임울로 심방의 괴노깃당(케네기) 본풀이 중에서, p.377.

26) 장수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p.140.

는 어긋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어긋남은 송당이라는 명칭이 외부에서 유입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소나무가 아니라 팽나무가 신목인데도 명칭을 송당이라고 했다면 그 명칭은 외부에서 유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2. 송당 본풀이와 신라계 신화의 유사성

한편 송당 신화에서 소천국이 작은 소나무밭에서 태어났다는 출생기원은 신라의 박혁거세 탄생설화와 유사성을 보여준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전한 지절 원년(B.C. 69) 임자년 3월 초하루에 진한 땅 6부의 조상들이 모여 군주를 구하는 회의를 열었는데, 양산 아래 나정 근처에서 번갯불과 같은 이상한 기운이 땅에 드리우고 백마 한 마리가 꿇어앉아 절을 하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주색 알이 발견되었는데, 그 알을 깨뜨려 얻은 사내아이가 훗날 혁거세 왕이 된다<sup>27)</sup>. 이는 소위 난생신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송당 신화의 소천국 역시 알에서 나온다.

소천국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위에 언급된 본풀이 대목을 다시 해석할 때 드러난다. “그는ㅁ들 존소남밭 알로서 탄생되었다”는 대목에서 ‘존소남밭 알’을 진성기는 ‘존소남밭 아래’라고 보았다. 이 해석은 얼핏 보면 제주방언의 어법과 일치하는 것 같지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알로서’라는 말이 석연치 않다. 소나무밭 아래서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래’라는 말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알’은 ‘아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알[卵]’로 볼 수도 있다. 즉 소천국은 박혁거세 탄생설화와 마찬가지로 소나무 숲에서 알로 태어났다는 말이다. 난생설화(卵生

27) 일연, <삼국유사>, 김원중 옮김, p.68.

說話)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아시아의 남방에 두루 분포하고 있으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나무 숲에서 알로 태어났다는 대목은 신목으로서 나무가 상징하는 천손강림의 신화가 난생신화와 복합된 것으로 우리 고대 신화의 일반적인 양식에 부합한다. 이는 송당 신화의 문맥에서는 우연이라 할 수 없다.

또 한편 송당 신화는 특히 신라계 신화와 유사성이 두드러져 보인다. 위에 나온 “ㄱ는ㅁ들”, 즉 작은 돌무더기는 무슨 말인가? 이 역시 우연히 끼어든 말은 아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라의 제4대 탈해왕 대목을 보면 탈해왕은 용성국(龍成國)출신으로 태(胎)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알로 태어나 배에 실려 바다를 건너온다<sup>28)</sup>. 그런데 탈해는 자신의 출생내력을 말한 다음에 의아스럽게도 지팡이를 짚고 노비 두 명을 데리고 토함산 위로 올라가서 돌무더기를 만든다. 이 돌무더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까지 정확한 해석이 내려지지는 않았으나 그 뒤로 전개된 탈해의 행적에 비추어 은신처가 아닌가 짐작하고 있다. 어쩌면 적석총 무덤을 은신처로 삼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쨌든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돌무더기가 송당 신화에서 소천국의 출생과 관련하여 등장한다는 것은 흥미롭다. 결국 소천국이 “ㄱ는ㅁ들 즈소남발 알로서 탄생되었다”는 대목은 “작은 돌무더기 작은 소나무 숲 알”이 되는데 이는 신라계 신화에서 박혁거세나 석탈해의 출생과 매우 유사성이 큼을 보여주고 있다. 영웅출생의 내용을 전하는 신화의 비교에서 송당신화에 신라계 신화와 유사한 이야기가 전하는 까닭은 송당 신화와 신라계 신화와의 직접적 교류나 간접적인 영향을 암시한다.

28) 일연, 《삼국유사》, 김원중 옮김, p.77.

## V. 결론

송당 신화에서 신의 기원 대한 이야기는 신화의 전반부에 한정된다. 송당신의 자식들이 부모와 불화하여 쫓겨나서 새로운 영웅으로 탄생하는 신화의 후반부는 신화적으로 더욱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나 그것은 송당 신화의 제주 정착 이후의 당 가르기와 관련되어 있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18명의 아들이 당을 이루어나갔다는 당 가르기의 의미는 민속학적 차원에서만 볼 일은 아니다.

송당계 신화의 당 가르기는 매우 정치적이다. 송당신의 아들임을 자처하는 열여덟 곳의 당들은 부모와 불화하여 갈라져 나갔으나 부모의 권위를 그대로 빌리려는 이중적인 책략을 뚜렷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송당 신화의 경우 당 가르기는 권위에 대한 도전과 권위의 편승이라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하나같이 본풀이의 서두에 송당의 신위를 부르고 그 아들임을 자처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나의 신당이 고대와 중세 사회에서 차지하던 정치적, 경제적 위상과 비교하여 볼 때 그것은 의미심장하다.

송당 신화의 가지 당들은 대개 제주의 북동부, 제주시와 조천, 구좌, 성산, 표선에 걸쳐있는데 이렇듯 광대하고 확고한 분포는 제주신화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간 민속연구자들은 제주도에서 동부지역에 신당이 많은 이유를 동부지역의 척박한 풍토에서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sup>29)</sup>. 그러나 보통 이런 단일한 이유로 설명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 송당 신화의 분포를 지리적 이동 경로로 보면 제주문화가 중산간 마을 송당에서 상당한 권위로 존재했음을 짐작케 해준다. 그러한

29)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에서 2장 6절, <제주도 동북부에는 왜 무속 전통이 많은가>, pp.177-180.



바탕에는 현실 사회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힘과 일정한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제주의 민속에 대한 연구가 역사적 변천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다만 근세기 들어, 특히 43사건을 거치면서 피폐해진 제주내륙의 상황을 정태적으로 받아들여 고찰한 점은 그 동안의 연구들에서 보이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어떠한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진 적은 없으나 송당 신화에서 백조할망이 송당에 터를 잡게 된 이유나 이후 갈라나온 당들의 분포를 보면 고대에 송당은 제주 동부내륙<sup>30)</sup>의 정치적 중심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송당 신화가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그런 암시를 담고 있다. 송당 신화에서 수렵문명과 농경문명이 공존하는 양상을 두고 혹자는 수렵문명이 농경문명에 굴복하는 삼성신화보다 더 오래된 양상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명의 경제적 토대와 풍토의 관련을 고려해보면 이는 반드시 앞뒤를 따져 단계론적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금백조계 집단이 송당에 자리를 잡은 것은 송당이 광활한 토지를 가진 곳이었기 때문이다. 신화 속에서 금백조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곳은 “피아흙 섬지기 유봉이굴왓”이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은 유봉이굴왓이 매우 넓은 경작지임을 말해주고 있다. 신화에서 아흙은 아주 큰 수라는 뜻으로 쓴 것이다. 이는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바, 송당의 경작지는 넓기로 소문이 나 있다.

30) 제주의 주거지를 지리적으로 구분할 때 보통 해안과 중산간으로 나눈다. 그런데 중산간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애매하다. 농경이 가능한 주거지역을 중산간이라 부르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필자는 여기서 제주내륙이라는 용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리학적 개념으로 내륙은 대륙의 안쪽을 뜻하지만 문화적 개념으로 보면 해안과 다른 생활양식을 지닌 곳을 내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송당 마을을 포함한 소위 제주 중산간의 너른 경작지와 광활한 들판을 보면 그곳을 중산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 제주인들의 용어에 따르자면 그곳은 ‘웃드르’인데, 본고에서는 이를 제주내륙이라고 썼다.

한편 송당은 제주에서는 내륙에 위치하고 있고 위로는 교래 들판과 바로 이어져 있어서 천혜의 사냥터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몽고 점령기에 설치되었던 십소장 중에서 일소장이 설치된 곳이 지금의 송당, 덕천, 교래에 걸쳐있는 접경지로서 드넓은 목초지를 가지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찍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국립목장이 만들어졌다는 점<sup>31)</sup> 등도 송당이 수렵문명과 농경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면모를 삼성신화와 비교해 보면, 현재 삼성혈을 중심으로 일도, 이도, 삼도로 권력을 분점한 삼을라 삼성세력은 해변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수렵이나 농경보다도 대외활동에 더 적합한 터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신당들의 분포를 지리적으로 볼 때 두드러지는 것은 송당이 제주 동부내륙의 교통의 요지라는 점이다. 아직까지도 제주의 마을 중 가장 넓은 면적을 포괄하고 있는 송당리는 일주도로가 생겨나기 전까지만 해도 제주내륙의 교통의 요지였음에 분명하다. 고조기가 송당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는 점도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고조기가 송당에서 유숙했다는 것은 고관이 머물만한 유서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과 순력의 주요 지점이면서 교통의 요지였다는 점이 복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풀이에 나와 있듯이 금백조계 집단이 송당에 자리를 잡은 것은 농경에 유리한 너른 들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소천국이 금백조 계열과 결합했다가 분리되었으면서도 동시에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수렵이 가능한 광활한 지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백조계 집단이 송당에 터를 잡은 것은 이런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금백조 계열이 정치적으로 불교 세력에 쫓겨 제

31) 김봉옥, 《중보 제주통사》, pp.314-317.

주로 왔다면 해변보다는 내륙으로 들어가 터를 잡았을 것이다. 송당이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너른 땅을 가졌다는 점, 자연하천과 천연 못들이 산재한다는 점, 동부지역의 교통의 요지라는 점 등에서 송당은 정착에 가장 유리한 곳이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송당 신화의 역사적 해석은 다음과 같다. 송당 신화가 제주신당의 원조라는 점, 삼을라 신화와 유사한 구조를 담고 있는 데서 송당 신화의 고대성은 충분히 입증되는데 여신 금백조가 남신 소천국보다 더 발달된 문화를 가졌다는 것도 일반신화에서는 여자신이 남자신보다 더 고대적이라는 통설에는 위배되지만, 이런 특징은 거꾸로 송당 신화가 정치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기도 하다. 금백조가 경순왕의 공주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김씨성을 가졌고 신화의 내용과 구조에서 신라계 신화와 거의 동일한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송당 신화는 신라의 정치세력의 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송당이라는 명칭 또한 외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소나무를 신목으로 모시는 사례가 제주 섬에서는 거의 없는 반면 한반도에서는 소나무가 산신신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금백조 세력이 해안이 아니라 내륙으로 날아간 것은 금백조 계열의 정치적 상황 때문이기도 하고 제주 내륙에서 송당 지경이 가지는 지형학적 가치 때문이기도 하다. 해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외적으로 근거지가 쉽게 노출되지 않으면서 안정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드넓은 경작지와 복초지, 사냥터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주 동부의 교통의 요지라는 점 등이 두루 금백조 세력으로 하여금 송당에 자리를 잡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신당의 본풀이를 확정된 역사로 간주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막연한 추정일 수밖에 없다. 물론 고고학적 발굴이나 본풀이와 고대 지명

등에 대한 연구들이 심화된다면 고대사와의 연관성들이 드러날 것이다. 아직은 어디까지나 그야말로 신화의 연구로서 역사적 해석은 정황에 따른 유추일 뿐이고 다만 신화적 양식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고찰해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본풀이나 지명유래 등이 많은 실마리를 담고 있으므로 앞으로 신당본풀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주제어**

신화, 송당, 금백조, 소천국, 신라, 제주도

## 참고문헌

- 고대경, 『신들의 고향』, 증명, 1997.
- 김달진, 『한국한시』, 민음사, 1989.
-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새림, 2000.
-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 서거정, 『동문선』, 민족문화추진회, 1977.
- 일 연, 『삼국유사』, 김원중 옮김, 울유문화사, 2000.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 \_\_\_\_\_,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2000.
- 조현설,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6.
- 진성기, 『제주도 무속 논고』, 민속원, 2003.
- \_\_\_\_\_,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 채희주, <이참고문(里參考文)>, 미간행 초록.
-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6.
- \_\_\_\_\_,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Abstract

Research into the Origination of the Myth of Song-Dang

KIM, Jin-ha

The myth of Song-Dang village is known to be one of the oldest things in Jeju island. In particular, its narrative is similar to the famous Samulla Myth. And the story of Song-Dang sanctuary and the branches of it are spread all over the east region in Jeju island.

But the characteristics of Song-Dang myth are near to those of the ancient Shilla dynasty. The hero and the heroine in the myth of Song-Dang have close relations to the history and the myths of Shilla. First, the heroine KUMBAIKJO has the same family name KIM(KUM) as the Shilla dynasty. Secondly, her birth has roots in the capital of Shilla. Thirdly, the origin of the hero SOCHUNGUK is also very similar to Shilla Myths. Finall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fact that the name of Song-Dang has the double meanings. One is the name of village, and the other is sanctuary's name. And then, their roots have relations to the pine tree. The noun Song-Dang is probably imported into Jeju island from an outer country.

In Jeju shamanism, the sanctuary's story(Bonpuri) might well be interpreted as the political facts in ancient times. As Samulla Myth, the myth of Song-Dang also probably represents the ancient history in Jeju island.

---

\* Teacher, Yangchung High School, Seoul

**Key Words**

myth, Song-Dang, KUMBAIKJO, SOCHUNGUK, Shilla, Jeju island

교신 : 김진하 158-056 서울시 양천구 목6동 911-2 양정고등학교  
(E-mail : jobana@hanmail.net 전화 : 010-9541-3880)

최초 투고일 2006. 6. 3

최종 접수일 2006. 7. 10